

# 춘천 닭갈비

## 민고 먹는 '원조'의 품격

닭갈비, 우리 외식문화에서 대표적인 핫 아이템 중 하나다. '춘천닭갈비'는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힌다. 닭갈비의 도시답게 매년 춘천역 앞 옛 미군부대(캠프페이지) 부지에서는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라는 이름으로 시끌벅적한 축제의 장(場)이 마련된다. 춘천시내는 물론 외곽지역에도 닭갈비 골목, 닭갈비 거리의 이름이 붙은 곳이 여럿 생겨났고, 조리법도 날로 다양해 지고 있다. 사실 음식 이름에 지역명이 덧붙이는 것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원조(元祖)'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음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관광 자원에 포함시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 밀면이나 전주 비빔밥처럼 말이다.

### ◇닭갈비 유래는?

닭갈비를 한자로 바꿔쓰면 닭 '계(鷄)'에 갈빗대 '복(肋)', '계복(鷄肋)'이 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단어다. 이 단어는 후한서의 양수전(楊修傳)에서 유래된 고사성어로 유비와 조조가 한중 지역을 놓고 전쟁을 벌일 때 일화에서 비롯됐다. 그리 큰 쓸모는 없지만 버리는 아까운 사물이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인다. 하지만 음식 이름으로 계복(鷄肋) 또는 닭갈비라는 표현이 나오는 옛 문헌은 찾기 힘들다. 아니 아직까지는 없다.

이전에 보도된 닭갈비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 닭갈비의 유래는 약 1400년 전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시대에 닭갈비와 유사한 음식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증빙할 자료 또한 없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문헌도 증빙자료도 없다면 구전됐다는 소리인데 논거 자체가 빈약하다. 누군가 내놓은 추측이 인용을 인용을 반복하면서 정통한 닭갈비의 '음식 문화사'로 변신해 유력한 기원설로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역사 문헌 속에서 그나마 닭갈비와 유사한 음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 28권(1497년) 등에 나오는 '자계(炙鷄)'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구울 자(炙), 닭 계(鷄) 즉, '닭구이'다.

닭구이는 '음식디미방(飲食知味方·1670년)', '구합총서(閩粵雜書·1809년)',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1924년)' 등 다수의 요리책에서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책에는 조리법도 비교적 상세히 소개돼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특별히 다르지 않고 '대동소이'하다. 요리하는 과정만 놓고 보면 닭구이를 붙여 구워 익히는 방식이나 일정 시간 양념에 재워둔다는 점에서 닭갈비의 그것과 닮아있다.



철판 춘천닭갈비



### ◇왜 춘천 닭갈비인가

'닭구이'를 '닭갈비'의 먼 조상 정도로 가정해 본다면, 경북 청송지역의 향토 음식으로 알려진 '닭불고기'는 '닭갈비'의 사촌지간 정도에 위치시켜 두는 것도 그리 무리는 아닐 듯하다. 실제 춘천닭갈비도 초기에는 닭불고기로 불렸다고 하니 어찌 보면 사촌 그 이상의 관계였는지도 모르겠다. 음식의 유래를 찾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음식의 역사를 찾고 이를 통해 특별한 정통성을 담보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선부르게 닭갈비가 '닭구이'나 '닭불고기'에서 진화했다거나 어느날 갑자기 '복'하고 튀어나왔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들어 단정하는 것은 그리 추천하고 싶지 않다.

춘천닭갈비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설(說)들이 난무하니, 급기야 춘천시청이 춘천닭갈비의 발생에 대한 '유래제정'을 하고 나섰다. 지난 2005년 2월의 일이다. 닭갈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두고 꽤나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던 모양이다. 당시 춘천시청은 닭갈비 가게 종사자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 1년여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고, 춘천닭갈비가 생겨난 역사적인 장소로 춘천시 중앙로 2가 18번지(도로명:춘천시 중앙로 59)를 지목하기에 이른다. 춘천 닭갈비 골목과 직선거리로 불과 60~70m 떨어져 있는 곳으로 현재는 5층 빌딩이 들어서 있어 옛 흔적을 찾을 수는 없다.

당시 공터로 남아있던 춘천닭갈비 근원지 터에 춘천시청은 '춘천닭갈비 발생유래 안내'라는 이름의 팻말도 세우는데 지금은 춘천닭갈비와 관련된 어떠한 표시도 찾을 수 없다. 아무튼 공식적(?)인 닭갈비의 기원은 이렇다. 춘천시 중앙로 2가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던 김영석씨는 1960년 당시 자신의 음식점에서 돼지갈비를 팔았는데 4.19혁명이 일어나면서 돼지고기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고된 끝에 닭 2마리를 구입해 돼지갈비처럼 양념을 하고 숯불에 구워 팔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춘천닭갈비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 ◇닭갈비에는 닭갈비가 없다?

닭갈비와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재미있는 글 하나를 발견했다. '닭갈비'라는 작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1995년 한 어느 신문 칼럼이 그것이다. 글쓴이는 닭갈비라는 이름에 최소한 역사성도, 논리성도, 과학성도 담겨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구이인지 찜인지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그저 '갈비'의 좋은 이미지만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가 닭갈비는 기존의 역사, 언어, 과학적 지식을 무시했다고 일갈한다. 그리고 글쓴이는 능력이 어울리지 않은 자리를 빈위(僞位), 이름을 빈명(僞名)이라고 한다는 친절한 설명을 곁들이고 이제 '빈명'은 버리고 제 이름을 찾으라고 권유한다. 이 글은 닭갈비들에게 '닭 허벅다리 구이'라는 이름으로 만족하라는 조언을 남기며 매조지 된다. 몇 해 전에는 어느 유명 음식칼럼니스트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닭갈비에는 우리의 '육광'이 투영돼 있다'는 말과 함께 '닭고기 야채볶음'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한적도 있다. 그의 말대로라면 김치는 '배추 고춧가루 양념 무침', 감자탕은 '돼지뼈 감자전골'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아무튼 음식에 덧붙여진 인간의 육광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음식 사이의 서열이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닭갈비는 닭의 갈비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다.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닭갈비에는 닭갈비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로 비난을 받을 만큼의 사뭇거리들이 음식이 만들어 냈다는 말인가. 느닷없이 나타난 해부학적 분석으로 인해 살벌하게 상처를 입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오히려 갈비라는 단어에 부(富)의 이미지를 담처럼 쌓아 놓은 사람들의 치기어린 분석과 글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닐지 모르겠다.

이쯤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춘천의 꽤 유명한 숯불닭갈비 가게에서는 실제로 닭갈비 부위가 재료로 등장하기도 한다. 맛있는 춘천닭갈비를 두고 꽤나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시끄러운 소용돌이를 뒤로 하고 명동 닭갈비 골목, 낙원동 닭갈비 골목, 온의 닭갈비 거리에서 춘천닭갈비는 여전히 성업중이다. /강원일보=오석기기자·사진=강원일보 사진부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

광주일보 江原日報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충북신문 부산일보 吉林日報 제주일보 新팔도명물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연속 연차] 수상

**CES**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국제박람회 [혁신기술상] 수상

**BIG INNOVATION**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서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